

정보처리기능사시험 합격후기

청각장애인 평생학습포털인 하이런(Hi Learn)를 통해
하이런 정보처리기능사 스터디 그룹 모집
공고를 본 것은 우연이었다.
물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막이 제공되는 하이런에
가입해서 하이런에서 제공하는 인문교양, 자기계발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있어 공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생체나이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문자로 심층 면접을 봐야 했고,
부족한 사람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셨다.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4시간 동안
하이런 정보처리기능사 스터디그룹 특강에 참여하였다.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였는데,
강사님들의 강의 열정이 휴대폰을 통해 다가왔다.

음성언어보다는 문자언어에 익숙하여
대부분 문자를 통해 소통을 한다.
그래서 몇 배 힘이 드셨을 것인데
강사님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배움의 지식을 전달해 주셨다.

당시엔 정보처리기능사의 시험과목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지만,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미 2021년 국가자격시험 응시기간이 지나서 2022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하이런에서 필기시험 교재를 보내 주셔서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출퇴근 지하철 시간이 1시간 정도 되어서
기출문제를 암기할 수 있었다.

필기시험은 거의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듯하였다.
2022년 1월 1회 시험에 응시원서를 넣고, 시험을 보았다.
다른 회차보다 쉽게 출제되었는지 시간 안에 풀 수 있었고,
합격점수보다 높은 80점대를 얻었다.

정보처리기사 1회 필기시험 합격 후에
하이런에서 실기시험 문제집을 보내 주셨다.
시중에서 2021년도판을 구입해서 보고 있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고맙게도 2022년도 새판(시나공)을 보내 주셨다.

실기시험은 알고리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웠지만,
다 맞출 각오는 아니어서 암기과목 위주로 시험 준비를 하였다.
범위가 정해져 있고, 빈출 문제(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빈출 문제를 암기 노트로 만들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외웠다.
(암기 노트는 인터넷에서 정리된 것을 다운 받아 사용함)

용어 자체가 생소하여 모르는 문제는
하이런 담당 선생님께 문자로 보냈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께서 특강 자원봉사 선생님께 전달하여
특강 선생님이 친절하게 개인교습처럼 알려 주셨다.

제1회 실기시험을 봤는데 엄청 어려웠다.
시험 결과를 보니 전국에서 35명 정도가 합격하여 합격률이 1.7%였다고 한다.
부끄럽게도 48점밖에 얻지 못해 크게 실망을 했다.

하이런 담당 선생님께서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를 내서 다시 2022년도 2회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인데, 1회 때보다 좀 더 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1회 때보다 시험문제가 쉬운 듯하였다.
그러나 실수를 많이 하였다.
아는 문제였는데도 답을 잘못 쓴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어서 합격했다.

경험으로 보면 필기시험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듯하다.
기출문제를 한 번 더 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실기시험 준비에 있어서는
첫째, 용어는 한글이면 철자를 잘 암기해야 한다.
영어로 외워야 할 것은 약어로 정확하게 암기해야 한다.
HTTP, DB, DBA, RDMS 같은 경우다.

둘째, 알고리즘 문제는 원리를 알면, 조금 쉬워진다. 겁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셋째, 너무 어려운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빈출 문제를 정확히 알면 50점은 넉넉히 가능하다.
첫 시험에서 48점을 얻은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빈출 문제는 적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실기시험의 기출문제는 보되, 응용해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똑같은 문제도 있지만 응용해서 나오면 주관식(단답식)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답을 적다가 틀릴 수 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스터디그룹 모두가 합격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하이런과 담당 선생님,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기술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하이런 게시판에서 댓글 축하 말씀을 보았는데 부족한 사람에게 너무나 과분하게 칭찬과 축하를 해주셔서 미흡한 글솜씨로 두서없이 몇 자 적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